

한국적 기술혁신 전략 시급하다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국가 기술혁신 체제의 경쟁력이다. 즉 과학과 기술이 활력있게 발전할 수 있는 탄탄한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갖추었느냐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국가 흥망의 결정적 요인

산업혁명 이후 주요 국가들이 부침한 데는 그 나라의 총체적인 기술혁신 능력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20세기 초반에 세계의 주도국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바뀌었고 중반에는 일본이 주도국가로 떠오른 이유는, 이들이 그 시대 첨단기술의 발전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의 공산국가가 붕괴의 길로 치닫게 된 근본원인의 하나도 체제가 현대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자기 나라의 특성에 맞는 개성있는 국가 기술혁신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이 원 영

과학기술정책관리 연구소
정책연구단장

일본·프랑스 등 경제대국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미국의 항공·우주산업, 일본의 전자산업, 프랑스의 원자력산업 등이 그런 전략으로 성공한 대표적 보기이다. 스웨덴·덴마크·스위스·캐나다·오스트리아 등 소득높은 작은 경제는 나름대로의 특화된 분야에 연구자원을 집중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도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는 기술혁신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 규모에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규모라고 할 수 있으며, 산업구조 면에서는 전자·자동차·기계산업 등 연구개발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이 주력인 특징을 갖고 있다. 또 국토면적이 작고 천연자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적 여건에 알맞은 기술혁신 전략이 필요하고 기술혁신 체제도 여기에 부응하도록 구상해야 한다. 연구개발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덴마크 체제도, 정부주도의 거대 과학기술 개발에 치중하는 프랑스 체제도 우리에게 맞는 것이 아니다.

모방으로 살아남지 못해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은 남을 모방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의 문화와 풍토에 부합하는 고유의 것을 창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적 현실에 맞는 기술혁신 체제를 구축해야만 21세기에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